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본격화 HVDC 연계로 2029년 완공 목표

기후부, 계통접속 개선 조기 완공
접속선로 15km→2km로 대폭 단축
최대 3000억 절감 사업성·실행력 ↑
전북·새만금청·한수원·한전 MOU

그간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돼 왔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기가와트) 사업'이 오는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접속선로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손질하면서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 온 대형 프로젝트다.

1단계 사업만 해도 약 13.5㎢ 수역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조 원에 달한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계통접속 문제였다. 당초 발전사가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9일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적기 연계를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을 마치고 참여 기관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부

내륙까지 약 15km에 이르는 접속선로를 직접 구축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최근 접속방식을 변경해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접속선로 길이를 약 2km 수준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2~3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구축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2031년까지 공용선로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해 수상태양광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 구축과 계통연계가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물론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한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울산형 '의료·산업·공학 융합' 모델 시동

근로복지공단-UNIST 공동추진
산재 예방·재활 모델 고도화 협력
의료공학 융합 인재유입 기반 마련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의료·산업·공학을 결합한 지역 상생모델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UNIST와 의료·산업·공학 융합을 통한 지역 혁신 모델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교류를 넘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근로복지공단병원(2026년 하반기 준공·개원 예정)을 거점

으로 의료와 산업·공학 역량을 결합한 '울산형 공공의료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병원 기반 구축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 모델 고도화 ▲의료공학 융합 인재 유입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울산 공단병원을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스마트병원'으로 육성하

는 한편, 우수 의료진 유입 환경을 조성해 울산시 최초 공공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UNIST의 의료·산업·공학역량이 공단병원과 만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합"이라며 "이번 협약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의료 혁신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공단병원을 지역혁신 최고의 파트너인 UNIST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해 시민들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통합수능 마지막 2027학년도 N수생 16만명대 전망

정시 불합격 6.9%↑... 재도전 늘 듯
의대 지역의사제, 정원 확대 변수

통합수능 체제 마지막 해인 2027년도, 재도전에 나서는 N수생 규모는 16만명 초반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학년도 정시 탈락 규모가 6.9% 급증하고 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모집정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는 수능 개편 직전 해에 N수생이 줄어들던 과거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9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

년도 전국 190개 대학 정시에서 선발인원은 8만6004명, 지원건 수는 51만487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합격 규모는 42만8869건으로 전년도 40만1210건보다 2만7659건 늘어 6.9% 증가했다. 선발인원은 줄었지만, 지원은 늘면서 경쟁이 심화된 결과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N수생은 2026학년도 15만9922명보다 증가한 16만명 초반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학년도 이후 22년간 N수생이 16만명을 넘는 해는 2005학년도 16만1524명

과 2025학년도 16만1784명 두 차례뿐이었다. 여기에 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모집정원이 확대되면서 의대 진입을 노리는 N수와 반수 수요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입시라는 점에서 내신 고득점 수험생의 수시 재도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적인 탈락 증가 속에 권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특히 지방권의 탈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현진 기자 lhj@

aT, 설맞이 로컬푸드 직매장 최대 30% 할인

20일까지 전국 30개 직매장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설을 맞아 전국 '우수인증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다양한 할인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달 20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에 선정된 전국 50개 직매장 중 30개 직매장이 참여한다. 지역농산물 선물세트·제수용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전통놀이 등의 즐길 거리와 고객응모이벤트도 제공한다. 선물세트는 배, 한라봉, 사과, 골드키위 등의 지역농산물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순천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선물세트 기획전과 함께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해남 군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지역 향토음식인 닭장 떡국 나눔행사를 실시한다. 또 전북 완주 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

경기 안산 반월농협로컬푸드직매장, 평택로컬푸드직매장 오성점과 배다리점에서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이번 설맞이 행사에서 각 지역은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소비자는 맞춤형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aT는 기대하고 있다.

기온도 aT 유통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맞이 행사가 지역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풍성한 명절을 더해 주는 상생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맞이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 행사에 대한 정보는 종합정보누리집 '바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산업 스마트공장’ 10곳 내외 선발·양성

농어촌공사, 4월 9일까지 참여 접수

한국농어촌공사가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월9일부터 4월9일까지 두 달간이며, 대상은 농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다. 스마트 공장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이 지원사업은 농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제조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동물용의약품, 종자, 시설자재 등을 생산하는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이다. 공사는 1차 모집을 통해 약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 공장 설루션 도입을 비롯해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



전남 나주 소재 농어촌공사 본사.

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축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총 2억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제조회장 개선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게 특징이다. 지정 기업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운영 개시

해수부, 송도 아암물류2단지 3층 규모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장식 행사는 이달 10일 예정돼 있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는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 2단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9085㎡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382억 원(국비 10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물류센터는 스마트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한 화물의 입·출고 기능과 보관 자동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화물의 실시간 재고관리와 고객 수요 사전 예측 등이 가능하다. 이에 기존 물류센터보다 작업시간과 화물 처리 오류율이 10~20% 감소하고, 생산성과 공간 활용도는 최대 30%까지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용이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와 같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해 공급하면, 높은 초기비용과 투자자금 조달에 대한 중소물류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